

Robert Vannoy, 성경 예언의 기초, 강의 17

오바다 계속, 요엘

C. 오바다 내용

1. 개요

오늘 아침 오바다에서 우리는 내용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본 다음 요엘로 넘어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바다는 단 한 장에 불과 21절입니다. 그래서 짧은 책입니다. 나는 그것을 섹션으로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아홉 구절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그 심판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바다의 날짜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10절과 11절을 살펴보았으며, 그 구절들에서 토론의 중심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약탈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네 형 야곱을 치면 네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멸망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에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노략하며 이방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의 하나와 같았느니라.” 그래서 에돔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10절과 11절, 12절에서 14절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10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단위입니까, 아니면 12절부터 14절까지가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까? 다시 말해, 당신은

이것을 했고, 이제 다시는 하지 마세요. 나는 후자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와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12절에 “네 형제의 환난 날에 업신여기지 말며 유다 족속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고 하여 14절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내게는 12-14절이 미래에 대한 경고인 것 같습니다.

15-16절은 오바댜의 메시지와 함께 에돔에 대한 심판에서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 즉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동하는 또 다른 전환입니다. 15장과 16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7-21절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 입니다.

이제 각 섹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절에 “오바댜의 환상.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은 조상을 에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민족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 일어나 우리가 그녀와 싸우러 가자.’ 보라 내가 너를 열국 중에서 작게 하리니 너는 완전히 멸시를 받을 것이다.” NIV 번역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합니까? 당신은 동사 형태가 완료 시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적 완전성입니까? 그것이 NIV가 번역한 방식입니다. “내가 너를 작게 만들 **것**다 .” King James 는 “내가 너를 작게 **만들었다** ”고 말합니다. 이제 해석 포인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임박한 심판에 대한 언급인가, 아니면 과거의 역사적 현실, 즉

에돔이 작고 보잘 것 없는 백성이었고 결코 대제국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맥상 그것은 예언적 완료, 미래의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에돔에 임할 심판이므로 본문의 흐름이다 . NIV는 그것을 예언적 완료형으로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페트라/셀라 3절을 보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거하는 자여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데려오리까 하는도다. 바닥까지? 네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별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해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NIV 3b절의 “바위 틈에 사는 자여” 를 다시 읽었습니다. 메모에는 “Clefts of the rocks” 또는 “Sela”라는 대체 텍스트가 있습니다. “바위 틈에 사는 자”인가 아니면 “셀라에”라는 고유명사인가? Sela는 “바위”를 의미합니다. 페트라라는 도시는 “바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고대 도시인 페트라에 대한 언급입니까? 그 사이트를 방문했거나 사진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사이트입니다. 수년 전 신혼여행에서 아내와 나는 페트라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거기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스위스 탐험가 Burkhart가 1812년에 재발견할 때까지 잊혀진 도시였습니다. 입구는 구불구불한 협곡 또는 Siq를 통과하며 장소에 따라 12피트 정도로 좁으며 이 벽은 어느 쪽이든 100 또는 150피트 정도 올라갑니다. 옆. 그래서 당신은 이 협곡을 통해 들어갑니다.

물론 협곡은 그곳을 통해 흐르는 개울에 의해 절단되었습니다. 건기에는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상치 못한 폭풍우와 돌발 홍수가 최대 20피트 깊이의 협곡을 휩쓸 수 있습니다. 1963년에 20명의 프랑스 관광객이 돌발 홍수로 사망했습니다. 도시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입니다. 일단 그 시크를 통과하면 산이 둘러싸고 있고 꽤 높은 바위 불모지가 있는 이 광활한 계곡에 도달합니다. 그 산의 측면에는 매우 다채로운 붉은 사암, 주거지, 집, 다양한 종류의 건물을 깎아 만든 다음 계곡 중앙에는 독립된 건물과 오래된 로마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원래 에돔 사람들이 정착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날 당신이 보고 있는 폐허는 훨씬 후대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트의 초기 단계는 에돔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위 틈에 사는 너희"라는 문구를 어떻게 읽느냐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지점입니다. "sela"는 "Petra"의 고유명사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바위"라는 단어입니까?

Nabateans Edom을 쫓아내다 그러나 어쨌든 4 절은 "네가 독수리처럼 날아 오르고 별 사이에 둥지를 틀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나바테아 아랍인들에 의한 패배로 성취된 에돔의 영토 상실에 대한 예언으로 가장 잘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Nabateans는 북부 아라비아 지역에서 왔습니다. 말라기 1:3-5을 보면 말라기 시대인

기원전 430년에 에돔 사람들이 이미 이 아랍인들에 의해 그들의 영토에서 쫓겨나거나 쫓겨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에서를 미워하여 그의 산들을 황무지로 만들고 그의 기업을 광야 승냥이의 손에 붙였나이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에돔 사람들은 그들의 영토에서 쫓겨났습니다. 말라기 1장 4절은 계속해서 에돔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허물리라 그들이 악한 땅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항상 여호와의 진노 아래 있는 백성이라 너는 네 눈으로 보고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그러하시리라 하리라’ ’ 그래서 오바다는 에돔에 임할 심판을 선언하고 말라기 시대에는 그 심판이 이미 집행되었다.

쫓겨난 에돔인들은 나바 테아 인에 의해 그들의 영토에서 쫓겨난 후에 결국 이두매로 알려지게 된 남부 유다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John Hyrcanus에 의해 정복되어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하기 전에 한동안 독립적인 존재를 유지했습니다. 당신은 “Idumea”가 에돔의 그리스식 형태라는 것을 당신의 독서와 주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dumea”는 실제로 Edom의 그리스어입니다. 에돔인들은 남부 유다에 정착했고 결국 기원전 135년에서 105년 사이에 요한 히르카누스와 마카베오에 의해 강제로 유대화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왕조는 이두매인의 후손이며 그는 유다 왕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헤롯은 유대 민족을

박해했습니다. 당신은 야곱/에서 논쟁이 실제로 그의 기원이 이두매인 헤롯 시대까지 연장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에돔 사람들은 한 민족으로서 사라졌습니다. 이두매인은 얼마 남지 않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여기에 역사에서 단순히 사라진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 중 하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보는 심판은 에돔에 대한 선언입니다

비. 오바댜 10-14장 심판의 이유와 미래에 대한 경고? 지난 주에 논의한 것처럼 10절과 11절은 심판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약탈당했을 때 “너희도 멀리하여 그들 중 하나와 같았” 기 때문입니다. 10과 11입니다. 이제 12에서 14까지입니다. 그것은 10에서 11까지의 연속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경고인 별도의 섹션입니까? 질문의 이유는 동사 형식 때문입니다. 이것은 “ *waw 'al* ”이고 지시형의 구두 형식입니다. 그것들은 일련의 8개의 *와우 알* 형태와 지시형 동사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로 번역됩니다. 유인물의 5페이지에는 NICOT 주석에서 Allen과 예루살렘 파괴 이후에 책의 연대를 기록한 다른 여러 주석가가 승인한 것처럼 이러한 동사가 과거를 가리키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즉 오바댜에게 미래인지이다. Allen은 그의 NICOT 주석에서 6페이지와 같이 이 구절에서 동사 형태의 긴장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이제 Niehaus는 *소선지서에 대한 해석 및 설명 주석* 에서 3권으로 된 소선지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NRSV는 금지 사항을 완료 시제, 즉 ‘해서는 안 되는’으로 번역하지만 이는 문법적으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자, 내가 언급했듯이 이러한 경고를 주는 명령형은 여덟 가지가 있으며, 이미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는 것으로 자주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10절과 11절에 설명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언급입니다. 보세요, 그게 문제입니다. 12에서 14는 10과 11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0과 11은 심판의 이유이고 12와 14는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까? 나는 이것에 대한 다양한 번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킹제임스는 이러한 경고를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그들의 환난 날에 네가 그렇게 자랑하지 말았어야 하였느니라 너는 다시는 내 백성의 재앙의 날에 그들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하였느니라.” 12에서 14까지는 10과 11의 연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al*’ 과 지시사를 ‘*should not have*’로 번역해도 문제가 됩니다. 즉, 현재든 미래든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완성된 행동이다. 제임스 왕이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는 “Do not”입니다. 이제 보세요, 그것은 현재 또는 미래일 수 있는 ‘*al plus jussive*’만큼 더 좋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유대인 출판 협회는 “어떻게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과거지만 각주는 “말 그대로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NIV에는 현재를 암시하는 “당신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 있습니다. NLT, “당신은 가지면 안됩니다.” 그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킹 제임스와 매우 흡사합니다. 따라서 주석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8가지 지시형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번역이 다릅니다. 당신이 그 형태들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10과 11이 12에서 14와 결합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내가 개요에서 제안한 것처럼 10과 11은 심판의 이유이고 12에서 14는 미래에 대한 경고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다양한 번역을 마친 후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Keil은 그의 주석에서 말하고 있으며,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지시형은 과거의 미래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Keil은 지시형은 그런 종류의 번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현재 또는 미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은 “특별히 과거도 미래도 아니지만 이상적인 의미에서 둘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종류의 제안은 너무 추상적이다. 나는 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소선지서 주석가인 Theodore Laetsch는 11에서 14까지를 현재의 목격자 묘사로 사용하므로 12에서 14까지의 경고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을 현재 진행 중인 어떤 것으로 여호람 시대에 두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Gaebelien은 10-14가 처음에 여호람 시대에 적용된다고 말하는

또 다른 학자를 언급합니다(대하 21:16).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중 참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약탈은 여호람 시대의 약탈에 적용되지만 동시에 같은 단어로 약탈은 586년에 바벨론의 약탈을 두 번째로 언급합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Laetsch의 현재 시제가 가능하지만 12-14절에서 미래에 대한 참조가 의도된 것 같습니다. 10절과 11절, 12-14절은 에돔 사람들에 의한 유사한 행동을 언급하는 반면 10절과 11절은 이미 일어난 과거 행동을 언급합니다. 여호람. 그러나 12-14는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 당시 에돔이 무시한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에돔 사람들이 586년 예루살렘 멸망에 참여했거나 적어도 기뻐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을 보면 35:5 “네가 옛적부터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의 환난 때에 그들을 칼에 붙였으니 그들의 형벌이 극에 달하였으니 그러므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피 흘리게 하리라.”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한 것 같습니다. Aalders는 이러한 형식을 수사학으로 보는 Allen과 유사합니다. 그는 10과 11이 12-14와 같은 사건을 언급한다고 주장한다. J. Eaton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과거로 가져갑니다. Hengstenberg는 그것을 미래로 받아들입니다.

이 형식이 지시적일 때 왜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12에서 14를 미래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까? 미래를 언급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Aalders가 하는 것처럼 10절과 11절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12

절에서 14절에서 미래에 대한 경고가 주어진 것이 이상하다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된 반대 인 것 같습니다. 왜 에돔이 10장과 11장에서 이미 행한 일에 대해 에돔에 심판을 선고 하고 다음 절에서 미래에 관한 경고를 합니까? 논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에돔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과 여호와께 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경고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다른 곳에서의 경고: 렘 18장; 아모스 2장과 5 장은 예레미야 18 :5-10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이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가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너희를 행할 수 없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 같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어느 때에 내가 한 민족이나 한 나라를 뽑고 헐고 멸할 것을 선포하고 내가 경고한 그 민족이 그 악을 돌이키면 내가 뜻을 돌이켜 내가 계획한 재앙을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 즉, “다시는 이러지 말라” 는 미래에 대한 경고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에돔은 회개하고 과거에 가졌던 태도와 행동에서 돌이킬 것입니다.

아모스에게 가면(물론 이것은 에돔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지만 동일한 원칙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장에서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아모스 2장 13-16절을 보십시오: “곡식을 실은 수레가 부수듯이 내가 너희를 부수리라. 발빠른 자도 피하지 못하고 강한 자도 힘을 모으지 못하느니라.” 15절, “활 쏘는 자는 당하지 못하리로다. 발 빠른 군인은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16절, “그 날에는 용사라도 벌거벗고 도망하리로다.” 이제 그것은 꽤 강력한 심판의 발표입니다. 3:2에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을 택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벌하겠다.” 3:11-15, “적군이 땅을 침범하여 네 요새를 헐고 네 요새를 약탈하리라” 등등. 아모스 4:1-3, “사마리아 산 바산의 암소들아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여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남편에게 술을 좀 갖다 달라 하는 자들아 이 주권적인 주님은 그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셨습니다 . ’” 암 5:27, “내가 너를 다메섹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아모스 6:14,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대적하게 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길을 압제하리라” 그래서 당신은 이 모든 심판의 선언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5:4을 보십시오. 동시에 5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5장 14절과 15절에 “살려면 선을 구하지 말고 악을 구하지 말라” , 15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법정에서 정의를 지키라” 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 진술에 주목하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곱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실까 하노라”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열린 문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 이러한 심판의 선언과 다가올 심판의 경고를 주실 때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아마도 주님은 마음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과 11에서 판단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는 이러지 말라는 것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에돔은 그 경고를 무시했고 586년에 바빌로니아가 공격했을 때 다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날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0장과 11장의 약탈은 800년대 여호람의 때임을 암시하고, 미래에 대한 경고는 에돔 사람들이 무시한 586년이다. 이제 10에서 14까지가 모두 같다고 말하면 에돔에 심판이 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이것이 모두 586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에서 14는 “미래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야기되는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날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4. 오바다 15-16장 불의에 대한 심판 선포 15-16장으로 가봅시다. 네가 행한 대로 네게 행할 것이요 네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네 행위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니 만국이 항상 마시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마시고 또 마시리라.” 그래서 15장과 16장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에서 모든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에돔에서 일반적으로 이방인으로서의 전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와 날이 모든 민족에게 가깝습니다.”

여호와와 날 토론 이제 오바다가 기원전 84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는 첫 번째 예언자이며 이것은 예언서에서 여호와와 날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요엘에서. 주의 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날이 모든 민족에게 가깝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실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바냐 2:2의 “그 진노의 날”과 에스겔 7:19의 “여호와와 진노의 날”과 같은 변형을 포함하여 많은 예언서에서 이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약간의 수정이 있지만 모두 주님의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이해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이전의 선지자 아모스와 요엘도 여호와와 날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모스 5장에서 백성들은 주의 강림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복이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모하지만 아모스는 그들에게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아모스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와 날을

사모하는 너희여 어찌하여 여호와와 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밝지 아니하고 어두울 것이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여 꿈을 만난 것 같으며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대고 뱀에게 물린 것 같으리라. 여호와와 의 날이 어두움이 아니겠느냐 밝음이 아니겠느냐 캄캄하여 한 줄기 빛도 없겠느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의 날이 잘 알려진 표현이고 이 예언자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 같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모스가 제안한 것처럼 대중적인 개념은 이 날이 이스라엘의 적들에게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날은 이스라엘 자체에게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Joel과 Amos는 그러한 생각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임함을 근거로 온 마음을 다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주님의 날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논의할 것입니다. 여호와와 의 날은 특정한 특정한 날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언제입니까? 사용법을 보면 특정 날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과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의 날에 대해 “너희는 통곡하라 여호와와 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의 날이 오리라” 고 했습니다. 9절, “보라 여호와와 의 날 곧 잔혹한 날 곧 진노와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리니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 있는 죄인을 멸절하시리라.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들도 그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11절, “내가 세상의 악을 인하여 세상을 멸하리라.” 이사야 13장에 있는 이러한 진술의 문맥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심판이 바벨론에 임하고 바벨론이 멸망될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7절로 내려가십시오. 19절, “열국의 보배인 바벨론, 바벨론의 교만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나님께 엎드러지리라.” 그 바벨론의 전복은 여호와의 날의 도래로 언급됩니다.

예레미야 46장 10절을 보면 또 다른 용법이 있습니다. 칼은 만족할 때까지, 피로 갈증을 풀 때까지 삼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땅 유브라데 강 가에서 주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리이다.” 그런 다음 13절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6장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날은 B C 605년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벌이는 날로, 바벨론이 승리하고 애굽이 패한 날입니다. 이 구절은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예언서들에서 다양한 문맥으로 사용된 주님의 날이 항상 같은 주님의 날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 언급했듯이, 그것은 단지 특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 활동의 특별한 시간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어떤 구절에는 종말론적 맥락이 있습니다. 그 종말론적 문맥은 오바다 15장과 16장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불경건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미래의 주님의 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종말.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활동의 현현은 또한 주의 날로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날은 자동적으로 종말론적 종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몇 가지 상황과 같은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다서 15절로 돌아가 봅시다. 에돔의 심판과 만국의 심판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Keil은 그것에 대해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것은 인용문의 37쪽에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에돔에 대해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태도를 취하는 모든 민족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에돔의 죄에 대한 보복을 모든 민족에게 아낌없이 베푸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같은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절로 넘어가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네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그들이 마시고 또 마시며 처음부터 없었던 것같이 되리라.” 거기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마셨다.” 에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입니까? 문맥상 에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다의 이 전체 메시지에서 유다가 아니라 에돔이 언급됩니다. 평행법은 “

에돔아 너도 행한 것 같이” (15절), “네가 마신 그대로” (16절)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6절에서 “마시다” 라는 동사가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16a에서 “네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 마신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약탈당했을 때 네 형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을 기뻐하며 승리를 축하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계속 마시리라” , 마신다, 두 번째 구절에서는 축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을 맛본다는 의미에서 마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 입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잔치 중에 마신 것처럼 모든 민족이 계속해서 마실 것이며, 심판을 맛보는 의미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

나는 거기에 몇 가지 참고 문헌을 나열했는데, 예레미야 25:15과 16을 봅시다. 내 진노의 포도주를 주어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여라.” 여기서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맛본다는 의미입니다. “ 그들이 그것을 마시고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낼 칼 때문에 비틀거리며 미칠 것이다.” 그래서 잔을 가지사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모든 민족으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디. 오바댜 17-21장 이스라엘을 위한 회복과 미래의 축복 이제 오바댜의 마지막 부분인 17-21절이 나옵니다. 17-21장을 읽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은 “오직 시온 산에서

구원을 얻으리니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집은 그의 기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에돔과 모든 열방에 심판이 임하고 있으나 그것과 대조적으로 시온산에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오바댜 18절, “야곱의 집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의 집은 초개 같을 것이니 그들이 그것을 불사르고 사르리라. 에서의 집에서 살아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겝 사람은 에서의 산을 차지하고 평지 사람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은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밭을 차지하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가나안에 있는 이 포로 이스라엘 무리는 사르밧까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 세바라드에 있는 자들은 네겝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왕국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바댜 17-21장 해석 방법:

1. 영성화 접근법 - 교회

그래서 흥미로운 구절들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실제 해석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들이 이해되는 세 가지 기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17-21이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문화적으로 낯은 용어” 와 그 범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사야 11장의 후반부를 살펴본 것을 기억하십시오. 등가. 보세요, 그 문제는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영성화하라고 말합니다. Theodore Laetsch가 그 예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여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와 그 적들, 적들에게 포로로 잡혀 억압당하는 교회 회원들을 상징합니다.”

17-18절에 “시온산에서 구원을 얻으리니 야곱의 집은 그 기업을 얻으리니 야곱의 집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의 집은 불이 될 것이며 그루터기.” 그게 무슨 소리야? Laetsch는 말합니다. 말 그대로 오래된 사악한 원수로부터의 탈출은 낙원에서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결과로 거룩함이 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에 있어서 완벽한 거룩함,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에 의해 얻어지는 거룩함입니다. 이 구원의 또 다른 결과, 그리고 그로 인한 거룩함은 야곱의 집이 그들의 소유물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네겍 사람은 에서의 산을 차지하고 평지 사람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들은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밭을 차지하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지리학적 용어로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다양한 부분에 의한 땅의 재점령을 연습합니다. Laetsch는 19에서 20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19와 20은 명명된 모든 지역이 술어에 명명된 지역만을 소유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상당히 일반적인 히브리어 관용구를 사용합니다. 여러 주제와 먼저 술어의 수가 나열됩니다. 각 술어는 주제 중 하나와 연결됩니다. 실제로 모든 주어는 술어로 기술된 일을 수행하는 한 몸의 지체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름이 붙여진 여러 지역과 나라를 다시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점령한 땅은 오바다 시대에 그들이 차지했던 영토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19-20절의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추측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우리에게 유대, 예루살렘, 갈릴리, 요단 너머, 데가볼리, 이두매, 두로, 시돈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전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얻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오바다 17-20장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다 17-20장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Laetsch는 교회의 확장을 제안합니다. “신약 교회가 오바다가 지명한 나라와 지역의 정복, 참된 시온산.”

오바다서 19절에 나오는 “블레셋”은 “산기슭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차지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Laetsch는 사도행전 8:40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8:40은 무엇입니까?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니라. 블레셋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32, “베드로가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고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침상을 돌보아라 룻다와 사론의 모든 거민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19절에 사마리아에 대한 개요가 있습니다. “산기슭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밭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5~17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다 그 말을 좇더라” 고 했습니다. 등등.

오바다서 20절 페니키아의 스라밧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인한 박해를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니라. .” 제라밧은 페니키아에 있습니다. 세파랏은 소아시아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나오는 사데 교회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확산은 Laetsch의 관점에서 여기 오바다의 이 구절들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들을 다스리리니 그 나라가 여호와와 같이 되리라” 고 했습니다. Laetsch는 “하지만 에돔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절망적으로 영원한 저주를 받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자비한 적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말로 말했지만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예언을 끝맺습니다. “구원자들이 에돔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온 산에 올라가 그들의 적이며 압제자인 에돔에게 구원을 선포하도록 재촉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에돔은 하나님의 은혜의 '모형' 이자 상징이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 증거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은 신실한 협력으로 성직자들 평신도든 왕국이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17절부터 21절까지 이해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또는 국가적 “국가”, 지리적 또는 영토적 정복과 관련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록된 교회 시작의 맥락에서 복음 전파의 영적 실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2. 이스라엘이 그녀의 소유로 돌아올 것을 예언함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은 이 구절들이 이스라엘이 그녀의 소유, 즉 그녀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과 에돔이 국가적으로 심판받는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성취되었는가, 아니면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주석가 중 일부인 JB Payne과 Aalders는 대부분 신구약 사이 기간에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Aalders on 17b “이스라엘은 그가 쫓겨났던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그것이 1

7절의 마지막 문구입니다. 18절, “야곱의 집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의 집은 초라할 것이요” 돌아온 이스라엘이 에돔에 멸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19절, “그 여러 지역의 기업 곧 네겝 사람이 에서의 산을 차지할 것이요” 등은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20절은 실제로 17b의 반복입니다. 20절은 당신이 말할 수 있는 반복과 확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된 자들이 세바라드에 있으니 네겝 성읍들을 차지하리라” 20절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J. Barton Payne도 비슷합니다. 그는 17절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성취되었다고 말하며 그곳에서 야곱의 집이 유산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야곱의 집, 요셉의 집이 포로에서 성취되어 돌아올 것이다. 18b에서 21a까지 모든 다른 영토가 점령되고 있는 곳에서 이러한 정복은 Payne의 견해로는 BC 2세기에 성취되었으며, 당시 북부 유다와 베냐민은 Maccabees 아래의 유대인들이 표시된 지역으로 밀어붙인 핵심이었습니다. 예언자에 의해 . 21절의 구원자 또는 구출자는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유다와 그의 조카 요한 히르카누스는 시온 산에 올라가 에서의 산을 다스릴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Payne은 이것의 대부분이 신구약 사이 기간에 성취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 Payne은 21A와 21B 사이에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21B에서 그는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 되리라”는 미래의 메시아 시대에 성취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21A의 마카베오 시대인 중간 기간에서 2

1B의 종말론적 마지막 때인 “왕국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로 이동합니다 . 내 질문은 덜 절대적인 의미에서 21B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구세주나 구출자들의 행동이 마카베오에 대한 언급이라고 이해한다면 왜 21B “나라는 여호와와 그의 것이 되리이다” 를 마카베오의 성취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해하지 않는가?

따라서 Aalders와 J. Barton Payne은 둘 다 적어도 21B를 제외하고는 17-21을 이미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단어들이 묘사되고 있는 것에 대한 꽤 문자적인 이해를 취한다는 어떤 종류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Aalders가 무천년주의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Aalders가 이것을 대부분의 무천년주의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페인은 전천년설주의자입니다. 그러면 Payne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Aalders가 수행하는 작업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무천년주의자이지만 이것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성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는 유형론의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 세상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를 봅니다. 여기에서 에돔이 야곱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강한 심판이 선포된 것처럼 세상도 교회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이 에돔을 이길 것 같이 교회도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이길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마찬가지로 이삭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경제에도 나중에 교회의 가장 쓰라린 적이 되는 교회의 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러한 적들에 대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Aalders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서 교회와 세상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유형학적 의미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합법적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같은 종류의 이분법이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17-21이 교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모형적으로 우리가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7-21년을 이스라엘의 소유지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Aalders와 Payne은 그것을 신구약 중간 기간에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본다.

3. 예언의 다른 면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 땅의 최종 재분배

B., “예언의 다른 면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 예가 Gaebele in입니다. 그는 17B가 “야곱의 집이 그 기업을 차지할 것”인 땅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신구약 중간 기간에 그 성취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의 해석이 잘 작동하지 않는 곳이지만 그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18이 Judas Maccabeus와 John Hyrcanus에 의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18은 이미 충족되었으며 19와 20에 도달하면 아직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Gaeb elein은 19절과 20절에서 당신이 땅의 여러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마지막 재분배' ”

오바다 17-21장에 대한 결론

이 구절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것들이 성취된 것을 본 사람들에게 동의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단순히 지리적 세부 사항을 교회의 지배에 대한 모호한 예측으로 영적화해야 합니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동안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책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까? 확실히 이 마지막 대안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그 구절들은 전체적으로 구약 예언의 과정과 일치합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에서 Gaeb elein은 우리가 어려운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관찰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모든 세부 사항을 아시고 그분의 흩어진 백성을 잊지 않으셨으며 그들과 맺은 그분의 계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당신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다윗의

왕좌를 차지할 때, 이러한 예언의 얽힌 계획이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9절과 20절의 미래 성취를 기대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21명 중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간다.” 그는 “이 예언의 제한된 역사적 의미에서 오바다는 스룹바벨이나 유다 마카베오와 같은 인간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구원자들은 기껏해야 오바다 시대에 아직 오시지 않을 구세주의 전조에 불과합니다. , 그리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영광스러운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 “그가 무슨 뜻인지 묻는 것은 거의 관련이 없지만 그가 본 것은 세상의 구세주, 심판하실 구주, 성경 예언에서 ‘세상 왕국이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십시오.’”

과학적 주석은 이 단어들에서 이런 종류의 것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cofield Bible의 마지막 메모와 관련하여, 18절에 “야곱의 집은 불의 집이요 요셉의 집은 불꽃이요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 같은 집이 되리라” 고 하여 에돔은 후일에 부흥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오래된 용어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문화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를 그 한계까지 밀어붙이며 언급된 나라들, 바로 그 나라들이 성취될 때 관련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와 같은 구절에 대해 많은 해석상의 문제를 갖게

됩니다. 예언서에는 이와 같은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17-21장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무엇을 합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까, 보다 문자적인 의미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미 성취되었거나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좀 더 문자적인 의미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지만, Aalders와 Payne이 하는 방식으로, 특히 Macabees의 활동과 함께 신구약 중간 기간에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바댜에 대한 결론 논평 이것의 마지막 페이지로 가십시오 . 단지 몇 가지 결론 논평입니다. 오바댜는 놀라운 예언서입니다. 일반적으로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Paul Raabe는 그의 오바댜에 대한 Anchor Bible Commentary의 첫 번째 문단에서 그 의미를 포착했습니다. 저는 이 문단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오바댜서는 히브리어 성경, 즉 구약에서 가장 작은 책으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구약성서, 히브리어 성경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적절한 단어는 타낙 *입니다* . “히브리어 성경” 은 오늘날 학계나 기독교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토라), 선지자(느비임), 글(케투빔)에서 나온 타낙(TaNaK)이라고 부릅니다. “단 1장 21절로 되어 있어 성경 독자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1364절과 비교하면 21절은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오바댜를

면밀히 연구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우선, 작은 크기가 유리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독자는 머리 속에 간직할 수 있고 큰 어려움 없이 전체 책을 암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무들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고 숲 전체를 볼 수 있게 해 주는데, 이것은 큰 책으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오바द्या는 이스라엘의 예언적 전통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항상 인식되지 않았던 특징입니다. 이 짧은 책은 이스라엘의 적, 이 경우에는 에돔, 야훼의 날, 주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많은 위대한 예언적 주제를 우아하게 요약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 했습니다 . 그 땅은 '이스라엘이 그 기업을 차지하리라' 고 여호와의 왕권은 책 말미에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 되리라' 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더 자세히 전개되지만 예언서를 통해 흐르는 놀라운 주제 모음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많은 메시지의 간결한 전형 역할을 합니다 . 그것은 또한 예언적 담론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시와 산문, 판단, 고발, 경고, 약속 등의 화법과 수사적 문체입니다. 그것은 특히 후자의 선지자들의 말뭉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범주인 외국에 대한 신탁의 예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이사야, 예레미야, 이방 국가들에 대한, 불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수많은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바द्या의 작은 책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성서를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보람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과하고 무시하는 이 책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아주 잘 요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다에서 내 자신의 의견은 또한 21절의 짧은 기간에서 미래에 대한 놀라운 전망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예언, 에돔에 대한 한 가지 심판. 예루살렘의 두 번의 멸망은 이름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12장에서 14장 사이에 표면화되고 미래에 대한 경고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흠어짐은 20절, 마카베오 시대에 에돔에 확장된 지배와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도 21년에 야훼의 미래 메시아 왕국의 설립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 기간에 성취되는 그 부분의 일부.

요엘

가. 저자 및 날짜

이제 오바다에서 요엘로 넘어갑시다. Joel, A. 는 “저자 및 날짜”이고 B .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와 날짜를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예언서 중에서 아마도 가장 어려운 책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하니라” 그러나 우리는 요엘이나 브두엘의 개인사 에 대해 그 책 자체나 구약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달리 알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날짜에 관한 한 책의 간접적인 표시와 그러한 간접적인 표시로부터의 추론을 통해서만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가지 기본 위치가 있습니다. 첫째, 포로기 이후, 기원전 430년 또는 그보다 훨씬 더 늦은 느헤미야 치하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입니다. 또는 요아스 왕 835 BC 당시의 포로 이전 날짜 나는 포로 이전 날짜를 선택했지만 독단주의의 정도는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포로 이후 날짜에 대한 주장 포로 이후 날짜에 대한 주장 , a. 3:2b, 3, 5, 6, 17과 같은 구절은 멸망 이후에만 기록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엘은 이 사건 이후에 예언했습니다. 이제 그 구절 3:2b은 말합니다.

3절, “그들이 내 백성을 위하여 제비를 뽑고 남자아이를 창녀로 바꾸며

여자아이를 술로 팔았도다.” 5절 “네가 내 은금을 빼앗고 내 귀중품을 네

전당으로 가져갔도다” 6절에 “네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헬라인에게 팔아

고토에서 멀리 보내게 하였느니라” , 17절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줄을 네가 알리라” 고 했습니다. . 예루살렘이 거룩하여

다시는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침노하지 못하리로다.” 그와 같은 진술은 BC 58

6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야 기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앞 두 장은 성전과 성전 예배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학개와

스가랴보다 나중임에 틀림없다. 즉, 586년 이후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 봉사를 재건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3장이 586년의 사건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전과 도시의 멸망에 대해 언급된 내용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외계인이 존재하고, 은과 금을 약탈하고, 포로를 잡는 일은 시삭의 침공에서 블레셋과 아랍의 침입, 여호람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여러 사건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시작된 현재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에 대한 예언적 언급으로 3장 2b 절의 언급을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흘었으니 내 기업 곧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리라.”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열방”입니다. 그것은 3:1로 돌아갑니다. 내 기업 곧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내 백성을 열방 중에 흘었음이니라 그것은 예언적일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주장입니다. 그 진술은 586 이후에만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2, 침묵에서 나온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침묵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1. 예언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3:20에서 사용된 언어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영원히 거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할 것입니다.”

1. 요엘서에는 북왕국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음

그리고 요엘서에는 북왕국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고 주장됩니다. 만약 북왕국이 여전히 존재했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한 언급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결론은 북왕국은 이미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곳은 2:27, 3:2, 16에서 유다 왕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지만 EJ Young이 그의 구약 소개에서 지적한 *것처럼 성서*, “예언에는 북왕국의 이름을 사용한 특별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이름은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왕국에도 속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북왕국 유다는 다른 곳에서 때때로 발견할 수 있듯이 그들 사이에 구별이 없습니다. 요엘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얼마나 만들 수 있습니까?

비. 왕에 대한 언급 없음

침묵의 두 번째 주장은 왕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2, 1:14, 2:16과 같이 장로들에 대한 여러 언급이 있다. 요엘서 1장 2절은 “장로들아 이것을 들으라” 고 말한다. 1장 14절에 “장로들과 땅 거민을 다 소집하고”, 2장 16절에 “백성을 모아 성회를 성결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들을 모으라” 고 했습니다. 이제 이 두 논증에서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구별이 없고, 왕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들은 침묵에서 비롯된 논증이며, 그러한 모든 논증의 약점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나훔과

하박국의 포로 이전 예언도 왕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에 대한 언급은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언급이 사무실에 대한 언급인지 아니면 단순히 노인에 대한 언급인지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2장 16절을 보면 아마도 나이 많은 남자들인 것 같습니다. . 첫머리는 자들은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자들아.” 반드시 사무실이 아니라 다른 범주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장로에 대한 왕과 부부의 언급이 없다는 것은 왕이 없었던 시대에 이것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c.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구별이 없음 - 소위 묵시적 부분이라고 함 586
 년이 이미 발생했다고 가정한 3장의 언급 이후 세 번째 주장은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구별이 없고 왕에 대한 언급이 없음 c. 소위 묵시적인 섹션.
 이것은 일반적으로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지적되지만 주류 주석에서는 이것이 늦은 날짜에 대한 증거로 강력하게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묵시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종말”이라는 용어는 공개 또는 계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1, “요한의 묵시록”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차용되어 기원전 200년에서 서기 100년까지 번성했던 유대 문학의 한 장르에 적용되었습니다. 묵시 문학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예 를 들어 이사야서 24-27 장, “이사야 묵시록”은 묵시 문학으로

특징지어지는 것과 유사한 이사야서의 한 부분입니다. 모든 묵시문학이 늦었다면 이사야서 24-27장이 늦은 것이고 이사야서가 아니라 요엘이 늦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후기의 비성서적 묵시문학 사이에 구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원전 200년경부터 서기 100년경까지 그 후기에 번성했던 비성서적 묵시문학의 범주가 있다. 다음 단락은 RK 해리슨의 구약개론에서 후기의 비성서적 묵시문학의 특징을 기술한 단락 *이다*. 그가 그곳에서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과 악한 자, 두 개의 상반된 우주적 권세, 그리고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다고 여겨지는 현재의 시대와 하나님께서 악의 권세를 전복시키실 미래의 영원한 시대, 영원한 의의 조건 아래 그의 택하신 자들과 함께 최고의 통치를 하십시오. 이 접근 방식은 특정 구약 저자의 생각과 공통점이 있지만 성경적 묵시와 비성경적 묵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경 성경은 다음 시대의 유대교 외경 및 위경 문학에서 발생했거나 유대교 사상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서 선택된 자의 최종 구속을 두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의 왕국이 도래함으로써 새 질서가 세워질 것이지만, 그것은 현재의 세계 순서와 함께 계속될 것이지만, 그것은 고통, 폭력, 악이 현장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다를 것입니다.

목시문학에 대한 담론과 그 특징 목시문학에 관한 문헌은 엄청나게 많다. 이 제목 아래의 참고 문헌을 보면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목시 문학에 관해 Leon Morris가 언급한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 유인물에 대한 Morris의 두 번째 단락에서 그는 목시 문학이 계시적이라고 공언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계시를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가명입니다. 즉, 우리는 실제 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녹, 모세의 언약, 2 에스드라, 아브라함의 목시록과 같은 가명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공언적으로 계시적이고 가명적이며 많은 상징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원론, 비관론, 결정론 및 윤리적 수동성이라는 네 가지 지배적 개념이 특징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제 모리스가 의미하는 이원론, 비관론, 결정론, 윤리적 수동성은 무엇입니까?

이원론: 후기 비성경 목시 문학은 현 시대와 다가올 시대 사이의 뚜렷한 대조를 포함하는 종말론적 이원론을 표현합니다. 현재와 미래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왜?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고통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답은 하나님의 방법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상황을 바로잡을 것이지만 최종 구속 행위는 현재와 관련이 없습니다. 현세는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는 현 시대와 오는 시대 사이에는 대조가 있습니다.

비관론: 묵시문학은 사물에 대해 비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고통과 악에 버려두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현재 곤경에 대한 유일한 설명입니다.

결정론: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강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윤리적 수동성: 묵시록 작가들이 본 것처럼 그들의 시대에 문제는 국가적 회개의 필요성이 아니었습니다. 윤리적 권면이 부족하다. 죄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묵시론자들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므로 의롭지만 고통을 당하도록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호소합니다. 따라서 예언적 종말론 문학과 이 후기 묵시 문학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후기 묵시 문학은 이원론, 비관론, 결정론, 윤리적 수동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포함합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요엘을 후기 연대의 근거로 이 문학 유형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종류의 묵시 문학으로 분류할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주장은 나에게 유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종말론적 요소가 요엘서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며 요엘서에는 약간의 이미지, 특히 2장의 메뚜기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27, 그것이 기원전 8 세기 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그것들은 늦은 날짜에 대한 주장입니다. 이 책의 묵시적 특성에 대한 후자의 주장은 실제로 복음주의 학자들보다 비복음주의 학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 장에 있는 언급, 왕에 대한 언급 부족,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의 구별 부족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강력한 주장이 아닙니다.

C. 요엘의 포로 이전 날짜 a. 언급된 국가는 포로 이전 시대에 적합합니다.

포로 이전 날짜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포로 이전 날짜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835년경 요아스 시대에 책을 놓습니다. 편지 a. 3장에서 적으로 언급된 국가들은 포로 이후 시대보다 포로 이전 시대에 더 적합합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론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언급된 사람들은 페니키아인, 블레셋인, 이집트인, 에돔인입니다. 4절의 블레셋, 19절의 애굽, 19절의 에돔. 즉, 3장에 언급된 적국들은 유다의 초기 포로 이전의 적들이다.

비. 왕의 부재와 제사장의 탁월함 요점 b ., 왕의 부재와 제사장의 탁월함. 제사장에 대한 언급은 요아스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대제사장의 섭정 아래 다스렸던 때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는 어린아이처럼 보좌를 맡았고 대제사장은 실제로 다스리는 권세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추론일 뿐 요엘서에 있는 어떤 진술과도 그 당시까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 씨. 소선지서 순서에서 책의 위치 포인트 c .
책의 위치와 소선지서 순서. 이것이 결정적인 주장은 아니지만 앞서 명령에
대해 이야기했음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마지막 세 사람인 학개,
사가랴, 말라기는 포로 이후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 이후라면 왜
학개와 스가랴와 함께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순서가 왜 이래요? 연대기적
원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마지막 세 개뿐입니다.

다른 예언자들의 평행 구절에서 나온 논증은 연대 측정에 사용됩니다.
이것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아모스와 몇몇 다른 선지자들에게서 몇 가지
유사점을 찾은 다음 요엘이 1순위이고 나머지는 2순위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 주장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Driver가 말했듯이, “
어느 쪽에 우선 순위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특히 유리한 상황을 제외하고).” 그래서 나는 그것이 강력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론:

결론에 이르게 하는 요엘의 날짜를 고정할 결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

요엘의 날짜를 정할 결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나는 이 책을 포로기
말기에 배치해야 할 긴급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로 이전 시대에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제안하지만 확실히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그것을 공개적인 질문으로 남겨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포로기 이후 기간보다는 기원전 835년경 요아스의 통치 기간
동안 더 이른 시기를 제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B., "책의 내용"으로 인도하고 우리는 다음에 그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캐롤라인 메디츠(Caroline Meditz)

러프 편집: Ted Hildebrandt

Katie Ells의 최종 편집

Ted Hildebrandt 의 재내레이션